

2024 퇴직준비 모범사례 수기공모전 수상작품집

# 퇴직준비교육,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2024 퇴직준비 모범 사례 수기공모전 수상작품집

퇴직준비교육,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공무원연금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 CONTENTS

최우수상  
김선미

**배움과 도전,  
‘새로운 나’를 찾아서**

05

우수상  
허필우

**찬란한 내일을 위한  
‘내 일’ 찾기**

10

우수상  
김 완

**나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16

장려상  
전목희

**미래의 글로벌 리더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22

장려상  
문병권

**인생의 후반기,  
변화를 맞이하다**

26

장려상  
신용욱

**준비한 사람만이 누리는  
무지갯빛 인생 2막**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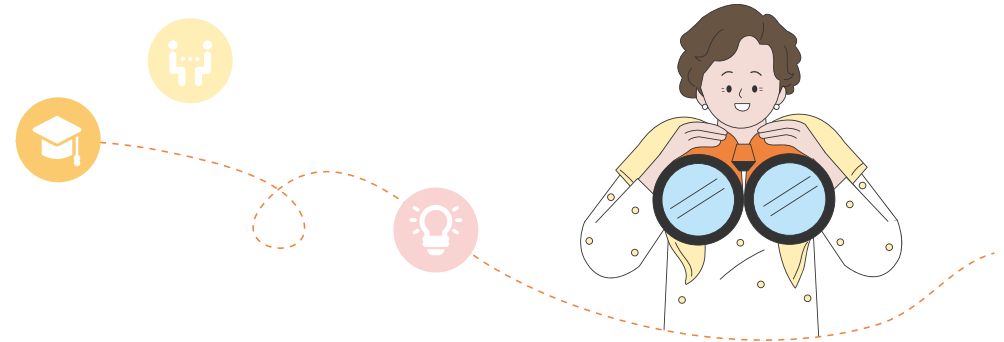
퇴직준비교육,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01  
최우수상  
김선미

## 배움과 도전, '새로운 나'를 찾아서



퇴직준비교육을 받기 전 나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평생 교육자로서 살아온 나의 정체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퇴직 후의 삶은 마치 빈칸처럼 보였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간만 헛되이 흘러보내게 될까 심히 걱정되었다.



###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에서

2022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자를 위해 마련한 '미래설계 50+과정'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어떻게 하면 퇴직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3박 4일 동안의 연수를 통해 나는 재정 관리, 심리적 준비,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

모든 강의가 유익했지만 그중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자아 찾기' 시간이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다르므로 자신이 느끼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만 했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가?' 나 자신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질문을 곱씹다 보니, 그동안 천직이라 생각하며 운명처럼 받아들여왔던 교사라는 틀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교육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이었다.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 했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연수 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로 바뀌었다.

그 순간부터 나의 두 번째 인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새로운 도전, 멈추지 않는 배움의 길

연수를 받고 나서 세운 첫 번째 결심은  
‘배움을 멈추지 말자’는 것이었다.

나는 진로전담교사로서의 경력을 살려 퇴직 후에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었다. 그래서 첫걸음으로 강사로서의 경력을 쌓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퇴직을 하고 나서 시작하면 늦다는 생각이 들어 퇴직 몇 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다. 퇴근 후 시간을 쪼개가며 분노조절상담사, 성폭력예방지도사, 통합폭력예방지도사, 청소년금연금주예방교육강사 자격증을 땀고, 퇴직 후에는 마약중독예방지도사, 인권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교육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깊이 다졌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 다시 서고 싶었고, 퇴직 후 요행히 기회가 닿아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 강의와 중독예방 강의를 하며 경험을 쌓았다. 학부모들과 마주 대하며 느낀 것은 교사로서의 나의 역량과 역할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전한 지식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은 나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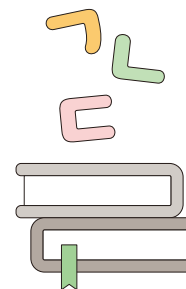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평소 외국인을 좋아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낯선 한국 사회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어야 했기에 OO사이버대학교 한국어다문화 학과에 편입했다.

기왕 하는 공부라면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체험 활동에도 참여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정보도 공유하면서 전문 지식을 쌓아나갔다. 하지만 늦깎이 공부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어가 왜 그리 어려운지 당혹스러웠고, 과제도 많은 데다가 시험도 어려워서 첫해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하다 보니 성적 장학금도 받게 되었다. 현재 4학년인 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은 다문화사회전문가 실습을 마치고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을 실습 중이다. 나의 배움은 이론에만 그치지 않았다. 올해 3월부터 나는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부인 리마에게 매주 일요일 저녁 한 시간씩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삶을 공유하며 마음 깊은 곳에 서부터 서로 연결되는 소중한 경험을 나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창이 되었다. 이 과정은 나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워가며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마음을 울렸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교육의 힘을 믿게 되었고, 타인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꼈다.

## 한 걸음씩, 새로운 길을 향해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을 다시 세우고 세상과 더 넓게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새로운 배움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수업을 듣고, 강의를 준비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의 삶에 도움을 주는 일들은 나의 삶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내가 퇴직 후에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연수를 통해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얻고자 했던 열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우는 위치든 가르치는 위치든 교육 현장에 있을 때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경험들과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고민들이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이제 교단에서 학생들과 마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교사이고, 여전히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퇴직 후에도 나는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새로운 삶에 쏟아부었고,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인생의 출발 신호가 떨어진 지 2년이 가까워오는 지금,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보람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나의 열정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배웠다는 사실이다.



오늘도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인생.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를 자문하며

그 답을 향해 미지의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가 본다.



02  
우수상  
허필우

## 찬란한 내일을 위한 '내 일' 찾기



2023년 2월, 공무원연금공단이 주관하는 은퇴설계교육 과정을 신청할 때만 해도 내 마음은 어수선하기만 했다. 2년 10개월이 지나면 공로 연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동안 뭐라도 일거리를 찾아두어야 하는데 아직 뚜렷한 계획이 잡히는 게 없어 조바심이 났다. 퇴직일에 맞춰 스마트폰에 'D-데이' 기능을 설정해 두고는 매일같이 숫자를 확인하면서 무엇이든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세월만 보낸 셈이었다.

##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다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퇴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일을 공유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순간, 강의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다. 퇴직 후 '내 일'을 찾기 위해 기술경영학 과정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일과 20년 넘게 꾸준히 독서 활동과 독후감 쓰기를 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를 집필하여 출판사와 계약한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학위는 당장 쓸 일이 없고, 책은 2년 전에 계약만 하고 진척된 사항이 없으니 그냥 다짐에 불과한 것처럼 들릴 수 있을까 봐 주저했다. 침묵의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교육생 중 누구도 자신의 퇴직 설계 사례를 발표하지 못한 채 첫 수업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퇴직 후에 강사 일을 하고 싶었다. 독서 이력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독서 방법'을 주제로 할 이야기가 많았다. 강연장에서 청중과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면서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교육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된 교육은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교육 첫날 '은퇴설계의 필요성'이라는 수업에서 강사님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강사님은 강단에 서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첫 번째는 학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강의 분야의 저서가 필요하며, 세 번째는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건을 나에게 적용하면, 한 가지는 이루었지만 두 가지는 어중간한 수준이었다.

##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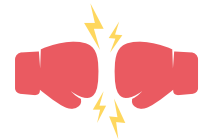
퇴직을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계획한 일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요즘은 박사학위도 흔한 자격으로 인식되지만 그래도 쓸모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명시된 조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석사학위는 이미 마친 터라 전공 분야와 대학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진학을 고민하던 시기에 나는 시청에서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기술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마침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개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사학위 주제를 먼저 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남보다는 빠르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관련 보고서와 논문을 미리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요약하는 훈련을 20년 넘게 해온 터라 사전 학습이 가능했다. 학위 주제는 연구 개발이 제품 개발로 연결되는 기술사업화 분야로 정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니 박사학위는 자신감만으로 덤빌 일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문득, 전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 떠올랐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언어맞기 전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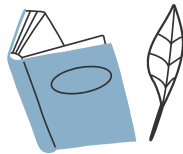


그랬다. 50대 초반에 시작한 박사과정은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젊음이 다 소진될 만큼 힘겨웠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허리가 삐걱거리고, 논문의 깨알 같은 글자들을 읽자니 한 시간만 지나도 눈이 시려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학회에 제출한 논문은 연거푸 거절당했다.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좌절감은 자기 의심으로 증폭되었다. 지도교수님이 다시 방향을 잡아준 덕분에 무사히 논문을 게재하고 학위논문 심사도 청구할 수 있었다. 마침내 3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나의 학위가 기술경영학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한 역할은 미미한 것이겠지만 퇴직 준비



를 하는 나에게는 의미가 컸다. 나는 학위과정을 통해 공부 방법을 깨우쳤으며, 나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펼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익혔다. 무엇보다 박사학위 논문을 써낸 일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 마침내 '저자'가 되다

강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즉 '저서'를 나는 가지지 못했다. 사실 나는 30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읽고 쓰기를 반복해 왔던 터라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해서 그동안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꾸준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수 있었던 나만의 독서법을 글로 써왔다. 한 권 분량의 원고가 완성되자 50여 군데의 출판사에 투고했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공단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책 출판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된 일은 없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출판사에서 방치하지는 않겠지?' 한편으로는 은퇴를 앞둔 지방공무원이 쓴 책을 누가 사서 읽겠느냐는 열등감도 들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출판 계약을 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나의 책이 없다는 사실에 자책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었다.

교육을 다녀온 뒤 묵혀둔 출판계약서를 다시 꺼내 들고 마음을 다잡았다. 먼저 출판사에 연락하여 팬데믹이 종식되었으니 도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부추겼다. '나만의 독서 카드 작성법'을 특허로 출원했으며, '특허독서법'이라는 브랜드로 홍보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쑥스럽지만 서기관으로 승진했다는 소식도 알리면서, 팀장에서 부서장이 되었으니 인간관계의 범위도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강조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드디어 출판사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내 이름이 박힌 책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다'가 서점에 진열되었다.

책이 출판된 후 신문에 기사도 실리고 TV와 라디오 방송에도 인터뷰가 나가자 조금씩 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강연 요청도 이어졌다. 출판과 동시에 저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만의 채널, 즉 나를 알리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주목했다.

채널만 개설해 두고 띄엄띄엄 영상을 올렸던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독후감을 편집해서 올렸다. 인스타그램에도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나만의 독창적인 '특허독서법'을 시각화하여 게시했다. 진심으로 책 이야기를 쏟아내면 구독자가 알아주겠지? 착각이었다. 구독자 수는 말 그대로 '가뭄에 콩 나듯' 증가했다. "매일 한두 명 늘었다가 줄어들기도 하는 구독자 수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빠가 유일할 거야!" 딸이 놀리듯 한마디 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천 명의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있다.



### 찬란한 내일을 위한 '내 일' 찾기

2024년 상반기에는 금융전문과정교육을 다녀왔다. 평소에 아내에게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들곤 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개념을 챙겼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테크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 나의 최종 목표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은퇴설계교육을 계기로 강사로서의 조건을 갖추었으니 본격적으로 강연을 해볼 계획이다. 나의 강점을 살려 강연 마케팅도 해야겠다. 아직 현직에 있을 때 부지런히 뛰어다닐 생각이다. 퇴직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얻은 교훈은 '퇴직하면 하자고 미루면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다.



최근에는 노인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책 읽기와 글쓰기’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지역 대학병원에서 독서경영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했다.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시도해 볼 만하니 독서와 관련된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 퇴직 준비를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에 동료들과 ‘Senior Life Campus’라는 퇴직 준비 모임을 만들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퇴직 후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자발적 모임이다. 지금은 15명의 소규모이지만 차차 더 많은 인원이 모여 들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 준비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가끔 나의 책을 사서 서명을 해달라는 분이 있다. 내가 자주 쓰는 문장은 ‘The best has yet to come!’이다.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찬란한 내일을 위한 ‘내일’ 찾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는 65세에서 70세 사이에 나의 ‘최고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내년에도 공무원연금공단 교육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첫 수업 때 당당하게 손을 들어

‘나의 은퇴설계 사례’를 공유하겠다.



03  
우수상  
김완

## 나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내가 퇴직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던 2013년 즈음이었다. 퇴직 예정일이 2023년 8월 말이었으니 딱 10년이 남은 시점이었다. 평생을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활동해 오다가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직책에 임용되자 존경하던 선배님들의 퇴직 소식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기 시작했다.



## 퇴직, 막연한 걱정

당장 서두를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자니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 한편을 차지하여 뒤숭숭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든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며 살아온 습관도 퇴직 걱정을 거들었다.

퇴직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수년 후의 미래를, 그것도 지금까지의 삶과는 사뭇 다를 세상을 예비하는 것인 만큼 막막하기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뒤적여보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그 자리에 머물렀다. 답답한 마음에 나보다 퇴직을 짧게 남겨둔 선배님들을 만나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퇴직 후를 탐색해 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퇴직을 코앞에 둔 선배님께 퇴직 이후를 자꾸 묻는 것이 어찌면 결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퇴직 준비, 절실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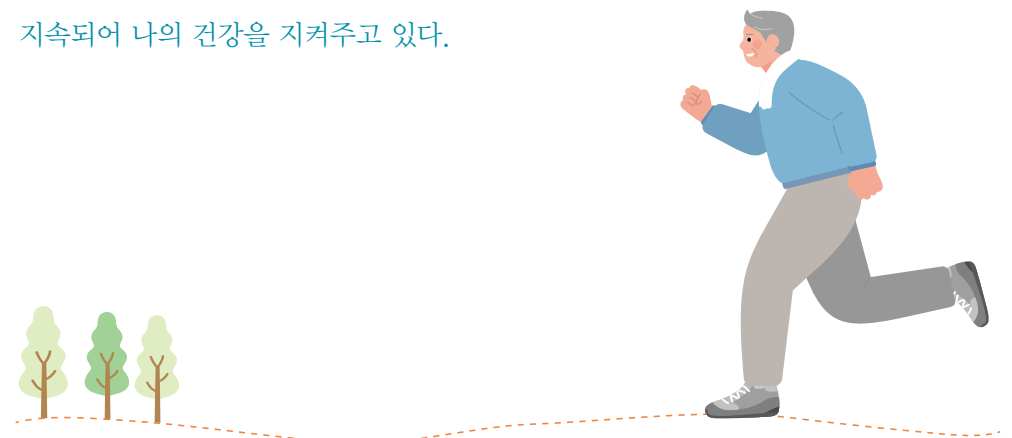
이런저런 고민만 하던 중 4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자를 위한 은퇴설계교육을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공무원 신분임에 뿌듯함을 느끼며 무언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다양하고 알찼다. 연금제도 안내, 인구 분포에 따라 예견되는 미래 사회,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해야만 하는 필연성, 퇴직 후 삶의 여러 사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들은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편으로는 더욱 절실한 과제로 다가왔다.

은퇴설계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정은 분임 토의였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연수생 7~8명이 같은 조가 되어 서로의 고민과 계획을 듣는 시간은 공감도가 높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노년의 건강관리에 관한 강의도 실생활에 매우 유익했다. 운동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일정한 거리를 걷는 것이 전부였던 나에게 노년을 위한 근력운동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교육 이후 규칙적으로 걷기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운동 습관은 퇴직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 나 자신에게 길을 묻다

퇴직이 가까워지면 대개 공직의 임기도 짧은 주기로 바뀐다. 한두 자리를 잠깐 거치고 나니 어느덧 정년퇴직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남은 세월을 지칭하는 숫자가 월 단위로 바뀌고, 퇴직은 막연한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퇴직 첫날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오늘 무슨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 고민하는 나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4년 전의 은퇴설계교육이 떠올랐다. 퇴직 50일을 남겨둔 시점에 다시 한번 공무원연금 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은퇴설계교육 연수에 참여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야 했다. 연수 첫날, 오후 강의 시간이었다. 장거리 이동 후의 피곤함과 점심 식사 후의 나른함을 단숨에 깨뜨리며 나의 뇌리를 강타하는 장면이 있었다. ‘은퇴설계의 필요성’이라는 강의 중 소개된 한 컷의 PPT였다. 퇴직 후 ‘진짜 나’로 살기 위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등 열 가지 질문이었다. 퇴직 후에 어떤 인생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먼저 고민하라는 깨우침이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만 매달려 버둥대고 있었던 것이다. 뚜렷한 인생철학과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방법만을 찾으려 한 세월이었다. 연수 기간 내내 나 자신에게 꽤 많은 것을 물었다. 그중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했다.



- 첫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 둘째, 퇴직 후의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 셋째, 내 후손들은 나를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할까?



## 세 가지 질문, 답을 찾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 일을 하고 싶었다.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내가 날마다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집중하고 가장 오래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더듬어 보니 글을 쓰는 일이었다. 나는 스포츠 활동이든 취미 생활이든 어느 것에도 몰두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아무리 재미있는 책을 읽어도 40분 이상은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기 수준의 어설픈 글이지만, 글을 쓸 때는 두 시간 이상을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60여 년의 삶에서 나에게 소소하게나마 기쁨을 안겨준 것도 글쓰기였다.

퇴직일에 맞추어 책을 한 권 출간했다. 글쓰기에 관한 책이다. 수년 전부터 지방의 교육신문과 교육 관련 잡지에 간간히 기고했던 글들을 모으니 어렵지 않게 기념 소책자를 만들 수 있었다. ‘생각이 머물다 간 자리’라는 제목으로 교단 일기, 교육행정 업무, 일상의 에피소드, 마음에 머물다 간 생각 등으로 구성했다. 보잘것없는 글이지만 41년 4개월의 공직 생활을 위로하면서 내가 나에게 건네는 선물이자 칭찬이었다. 퇴직 후에도 글쓰기는 계속하고 있다. 3년 후에는 또 다른 책을 쓸 계획이다. 글쓰기에 몰두할 수 있는 생활이 행복하고, 어쭙잖은 글임에도 응원해 주는 지인들에게 감사한다.

퇴직 후의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현직에 있을 때 정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일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싶었으나 현직이라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태한 탓도 있었다. 둘째는 해외 한국인 학교에서 근무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퇴직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우선 전공을 선택해야 했다. 한국어교육학을 선택했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진 분야였다. 석사과정

에서 초등국어교육을 전공했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기인한 선택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어교육을 공부하고 나면 외국에서 활동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학원에 등록하고 2학기째 공부하는 중이다. 9월부터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관심을 두고 학위논문을 시작했다. 마음 설레는 일이다. 퇴직 후의 나는 '한국어교육을 공부하는 사람', '한국어 교육과정 전문가'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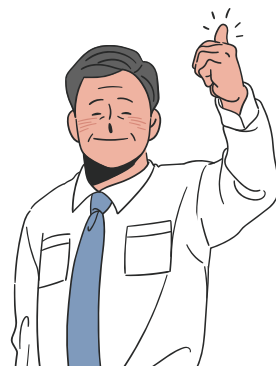
내 후손들은 나를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할까? 한 사회학자는 인간의 사망을 '의학적 사망', '법률적 사망', '사회적 사망'으로 분류했다. 사회적 사망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사망할 때를 의미한다고 했다. 나는 41년 4개월 동안 교직에만 몸담으며 때로는 선생님이로, 때로는 교육행정가로 살았다. 나의 가족과 지인들도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들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정년퇴직을 1년여 앞둔 시점에 첫 손주가 태어났다. 그것도 나의 예순한 번째 생일에 찾아와 주었다. 참으로 신통하고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이 녀석은 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까?

퇴직 후 매일 아침 사자성어 열 개를 습자하고, 영어 회화 문구를 학습장 한 페이지씩 필사하고 있다. 이 일은 나의 마음을 정화하기도 하고 포만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정신 건강을 위한 일이고, 퇴직 후의 일상을 구성하는 일이다. 후손들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나는 책 읽는 할아버지, 가끔은 책이나 신문 지면에서 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할아버지이기를 꿈꾼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할아버지, 무엇보다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지지해 주는 할아버지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들이 닮고 싶은 할아버지로 살아가야겠다.



04  
장려상  
전목희

## 미래의 글로벌 리더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2023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퇴직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지원교육을 운영한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일 초의 망설임도 없이 퇴직준비(재취업)과정을 신청했다.





3박 4일 동안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재취업을 결심했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뚜렷한 해법을 찾았다.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재취업 전략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은퇴 설계 사례’, ‘성공적인 취업전략’, ‘재취업 성공 사례’ 등

의 강의에서 공통된 내용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유사한 업종을 선택해야 재취업 이후에도 업무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도 있고, 6년 동안 자동화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29년 동안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교과를 지도하고 공동실습소에서 산업현장과 연계한 첨단 교육과정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잡서칭 활용기법’을 적용하면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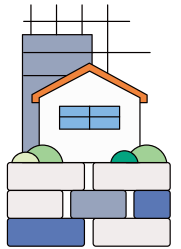
교육을 수료한 후 본격적인 재취업 준비를 위해 그동안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찾아가 사용 가능하도록 갱신했다. 갱신 과정에서 2021년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반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청하여 재취업에 유리한 자격증까지 추가로 발급받았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매일 기초체력 훈련을 계속했다. 2022년 태백체력인증센터에서 체격, 건강체력, 운동체력 등 15항목을 측정하여 ‘체력인증서 1등급’을 받아 체력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마음을 가다듬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했다. 먼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를 작성한 뒤 ‘잡서칭 활용기법’을 적용하여 여러 일자리 사이트를 검색했다. 20여 곳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그중 한 곳에서 면접을 보았으나 아쉽게도 취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다 퇴직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작실 관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융합프로젝트 시간과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공작 활동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구하고자 했다.

면접시험에서 자동화설비 정비 업무를 담당할 경력과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교과 과목을 지도한 경험을 피력했다. 특히 교직 경력 중 절반은 공동실습소에서 FMS, Smart Factory, Process Control 등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비를 직접 도입하여 지도했던 경험을 강조하여 답변했다. 결과는 합격! 퇴직 후 공백 기간 없이 곧바로 다시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내가 맡은 업무는 공작실 내부 리모델링 및 Shop 구성, 각 Shop에 설치할 장비와 비품 구입, 그리고 공작실 완성 이후 장비 운용에 관한 학생 지도 및 장비 유지보수와 시설관리였다. 부여된 업무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로, 나는 근무 첫날부터 자신감 있게 출발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공작실 예정지의 건축물 CAD 도면을 접수하여 어떻게 공작실을 구성할지 계획을 세웠다. 그다음에는 Lay-out 구상 및 리모델링 일정표를 작성하여 설계 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건축설계 팀에 요청했다.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대학의 Maker Space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휴무일에는 인근 대학교를 방문하여 조언을 들었다. 대학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공작실 구성안을 확정 짓고 설계가 완성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Shop에 설치할 장비와 비품을 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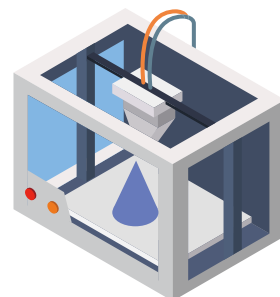
마침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고등학교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공작실이 완성되었다. 오프닝 행사 때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울컥한 감정이 들었다.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은 지난 8년의 세월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성으로 보상받은 것 같아 감격했다. 공작실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배운 지식과 회사 생활과 교직 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모두 활용하면서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갔다. 특히 교사로 재직할 때 공동실습소에서 첨단 교육과정을 개발한 경험은 공작실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몸은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완성한 공작실을 보노라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자긍심과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융합프로젝트 시간과 자율활동 시간에 공작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흐뭇하다. 내가 설계하고 완성한 공작실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은 리모델링된 공작실에서 3D 프린터와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로켓 제작과 고체로켓 연소 실험 및 고체로켓 발사 실험까지 마쳤다. 지금은 액체로켓과 하이브리드로켓 연소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취미 활동으로 자동차를 손수 제작하거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경시대회 출품 작품을 제작하는 등 공작실 활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준비(재취업)과정의 동기 부여가 없었다면 나는 퇴직 후 무료한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선택을 잘해서 퇴직 전보다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미래의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보람차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순간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



05  
장려상  
문병권

## 인생의 후반기, 변화를 맞이하다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본시 품성이 느긋한 데다가 대기만성형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미리 포기하거나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기에 시간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왔다. 그것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터득한 지혜이자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 사전 준비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미련 없이 승복하는 것이다.



## 퇴직의 시간이 다가오다



사냥하다 놓친 얼룩말을 빨리 잇는 사자는 다음 사냥을 더 빨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다가가지 못해 놓친 건가, 얼룩말보다 왜 더 빨리 달리지 못했나, 더 작은 얼룩말을 노렸어야 했나, 자신을 탓해 봐야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루 사이에 뒷다리 근육이 더 붙지 않을 테고, 시력이 더 또렷해질 리 없다. 따라붙을 만한 얼룩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순간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슬기로운 방법이다. 시간을 거스를 수 없기에 현실에 전념해 왔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난들 어찌하랴.

하지만 2022년은 여느 해와 달랐다. 예전에는 동기들과 차 한잔 나누면 승진 소식이나 뒷사람 뒷담화가 화젯거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퇴직에 관한 이야기가 부쩍 늘었다. 주로 퇴직한 선배들의 성공담이나 실패담이 입에 오르내렸다. 호기롭게 시골로 내려갔다가 몇 해 만에 되돌아왔다더라, 딱히 할 일이 없어 집에만 있다 보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더라, 집 안에 틀어박혀 리모컨이나 만지작거리며 하루를 보낸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퇴직 후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선배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동기들은 ‘삼식’이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요리도 배우고 취미도 서너 가지 배워두어야 한다고 두 눈에 힘을 준다.

2022년 새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집에서 맞이했다. 주변에서는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가니 태백산으로 가니 부산하다. 달력을 본다. ‘2022’라는 숫자가 유난히 커 보인다. 다음 해는 2023년. 현직 생활의 마지막 해라는 것을 깨달으니 무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듯 스친다. 갑자기 외판섬에 떨어진 느낌이 든다. 하루 종일 음습한 기운을 떨치지 못하고 보낸다. 나이가 들면 찬 바람을 더 잘 느끼나 보다.

확실히 작년과 다르다는 걸 느낀다. 퇴직을 해도 잘 보낼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퇴직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일렁이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 사회공헌의 첫걸음을 내딛다

뭐라도 준비하고 싶었다. 새해 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은퇴지원교육 안내 공문이 내려왔다. 창업과정, 귀농귀촌과정, 은퇴설계과정 등 여러 과정 중에서 사회공헌 과정이 눈에 들어왔다. 각자 지닌 재능으로 지역사회에서 조그만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과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교육은 사회공헌의 첫걸음, 정부 정책,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과 전략, 사회공헌 활동의 사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퇴직 후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퇴직을 하고 시간이 나면 자원봉사를 하며 살겠다고 하는 동료들은 복지시설에 가서 같이 놀아주고 청소나 해주겠다고 한다. 봉사하려는 뜻은 좋으나 단지 여유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처럼 들린다. 동료들을 껴안으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의미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은퇴지원교육은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알게 되었다. 그동안 뜬구름 잡고 있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사회공헌이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고, 자료를 검색하여 지식을 쌓았다.



이렇게 얻은 지식과 정보는 어두운 골목길을 더듬는 불안정한 발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 마을 도서관 활성화 지원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마을 도서관이 있다.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사서 선생님과 친해졌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발견했다. 매달 도서관 소식지를 만들어 게시판에 붙이는데 텍스트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편집이 어수선하여 가독성이 떨어졌다. 디자인을 바꾸는 게 좋겠다며 내가 시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우선 제목을 눈에 잘 띄는 글씨체로 바꾸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글씨체를 두 가지로 한정했다. 글의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고, 이미지도 텍스트와 어울리게 배치하면서 여백을 살렸다. 완성된 시안을 보냈더니 마음에 든다며 다음 호 소식지부터 반영하기로 했다는 연락이 왔다.

한번은 책을 빌리러 갔더니 사서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비를 받으려면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것이었다. 책을 빌려 보는 주민이 많으냐고 물으니 꽤 된다고 하기에 책을 많이 읽는 가족을 선정하여 다독상을 주고, 독서토론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좋다고 하여 기획안을 작성하여 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다. 독서 모임에는 주민 세 명이 참여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 나와 사서 선생님도 참여했다. ‘나이듦에 대하여’, ‘돌봄에 대하여’ 등 주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모임을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다는 주민들의 소감에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다독상은 어린이를 둔 가정 중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세 가족을 뽑아 한 달에 한 번 시상했다.

## 어린이를 위한 경제교육과 요리 강습

평생교육원에서 이탈리아 요리도 배우고 글쓰기 특강도 들었다. 글쓰기 특강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요리 이야기를 했더니 잠자코 듣고 있던 강사가 강의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자기가 초등학교 돌봄센터도 운영하는데, 아이들에게 요리 강습과

경제교육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섣뜻 답을 하지 못하고 보름 정도 고민했다. 문득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사회공헌교육 강사의 말이 생각났다. 갑자기 무모한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다. 초등학교생인데 못 가르칠 것이 무언가. 요리야 배운 대로 가르치면 될 것이고, 경제는 평소에 관심이 있던 터라 신문과 방송의 경제면과 뉴스를 꼼꼼히 챙겨 보고 있었다.

글쓰기 강사에게 전화해서 강의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 경제교육 두 시간, 요리 강습 한 시간 반. 요리 재료는 장보기 체험을 겸해 마트에서 구입하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강의 준비에 들어갔다. 아이들이 경제교육을 지루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활용하여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질문할 사항을 곳곳에 배치했다.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어린이책을 빌려와 강의 자료를 작성하는 데 참고했다. 장보기 체험을 준비하러 마트에도 들렀다. 동선을 살피고,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장 보는 요령을 교육할 장소를 물색했다. 마트 안은 항상 붐비고 곳곳에 물건이 쌓여 있어 적당한 곳이 없었다. 문화센터에 찾아가 센터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난감해하다가 빈 강의실을 빌려주었다.



드디어 강의 날, 막상 파워포인트를 켜고 강의를 시작하려니 조금 떨렸다.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나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첫째 날에는 경제교육, 둘째 날에는 마트에서 장보기, 셋째 날에는 요리 강습까지 무사히 마쳤다.

난생처음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내가 강의에 남다른 열의가 있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경제에 관한 지식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는 아이들 경제교육에 무관심하고, 경제적인 결정에서도 아이들을 배제하기 일쑤다. 학교에서도 이론 중심으로 경제를 가르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그런 까닭에 아이들은 경제 개념이 부

족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책임감을 느낀다. 우연한 기회에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강의하기는 했지만 정작 내 아이들에게는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않은 후회도 밀려왔다. 이왕 경제교육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 봐야겠다.



###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다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도덕적 신념이나 사회적 책임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자기만족이나 성취감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나는 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사회공헌은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나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어떤 거창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나의 작은 힘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되면 더 좋을 것이다.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여유 시간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불어 사는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더욱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은퇴지원교육을 받고 나서 내 생각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는 작은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제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후 끊임없는 변화를 거쳐 스마트폰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문명의 환경을 뒤바꿔놓았다.



나비효과의 원리에서 알 수 있듯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공헌교육 이후 내 인생의 후반기에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06  
장려상  
신용욱

## 준비한 사람만이 누리는 무지갯빛 인생 2막



누군가 인생은 두 번 산다고 했다. 나의 경우는 37년 동안 교사로서 살아온 삶이 인생 1막이라 한다면, 2024년 9월부터 일상인으로 돌아와 신중년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생 2막이라 하겠다.



1막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이다.

교직 생활 동안 침탐처럼 뽀족하고 날카로워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괜히 서글퍼지기도 한다. 오로지 한곳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긴 시간을 돌이켜 본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훈장은 달았지만 '교육' 외엔 문외한이고, 세상 물정에 어둡고, 다소 간깐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 '꼰대'라는 꼬리표가 턱 붙어 있던 시기다.

2막은 선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퇴직한 선배들은 퇴직 연수도 듣고, 금융연수도 들어두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강조하곤 했다.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한 선배들은 짝 짜인 일상의 그물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공간을 얻긴 했으나 무료함과 고독의 탓에 빠져 졸지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다. 이런 충격적인 결말은 이후 퇴직연수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동년배 모임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은퇴설계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몇 번의 신청 후에 겨우 선정되어 3박 4일 동안의 연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은퇴설계의 필요성, 연금제도 및 공단사업 안내, 여가설계, 세무와 상속 증여, 재무와 재테크, 선배와의 대화 등 강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했다.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적은 데다가 연금과 상속에 관한 것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지라 교육과정이 생소하고 낯설었지만 새로움을 찾는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했다.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질문했다.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마다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느껴져  
하루해가 짧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걸 기회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정보라고 하는구나'라며  
마음 속으로 박수를 쳤다.



연수 후 틈나는 대로 OO사이버진흥원 사이트에서 퇴직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연수에 참석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과 투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문득, 좀 더 일찍 연수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생 버킷리스트 목록'을 작성했다.

시골 주택 구매 후 전원생활 하기, 연 1회 이상 국내 및 해외 크루즈로 성지순례 하기, 주 1회 탁구 및 당구 동호회 활동하기, 자전거로 전국 일주하기, 부부가 함께 스포츠 댄스 도전하기, 여성회관이나 학원에서 요리 배우기,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장구, 기타, 사물놀이), 자발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미용, 식사), 전국 국립공원 등반하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성당 미사에 참여하기 등 열 가지를 정했다.

내 나름대로 악기를 다루는 음악 부문, 몸과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체육 부문, 마음과 정신을 살찌우는 두뇌예술 부문, 그리고 지금까지 도움만 받은 삶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공헌 봉사 부문 등 골고루 안배되도록 설계했다. 선배들의 조언을 정리해 둔 것이 목록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랑이 담긴 잔소리 같은 아내의 조언도 한몫 거들었다. 물론 잠을 설치기도 했던 내 고민의 흔적이기도 하다.

연수를 받고 나서 퇴직 이후를 헤아려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다. 유익한 퇴직연수 프로



그램을 찾아다니며 신세계로 영역을 넓혀나갔다. 대학에서 주관하는 연수, 은행에서 주관하는 연금연수, 유튜브 활용, 나의 행적을 글로 표현하기 등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자신감 넘치는 신중년의 삶은 상상만 해도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을 짐작해 보자니 미지의 세계가 두렵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았다.

퇴직연수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다. 퇴직한 후인 지금의 삶은 어떤가. 우선 노후 자금에 대비하여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퇴직수당과 공제회 금액 일부는 이율이 높은 행정공제와 공제회에 맡겼다. 그리고 매월 25일에 들어오는 연금으로 살아가야 해서 씬씀이를 규모 있게 하고자 용돈기록장을 써보기로 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전보다 30분 일찍 당겼다. 1년 이상 연락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모임도 월별로 정리해서 체계화했다. 시내 이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고, 무료한 시간 중에는 기도로 마음을 다잡았다.

버킷리스트 목록의 첫 번째인 전원생활을 위해 한 시간 거리의 근교에 아담한 시골집을 마련하고 텃밭도 가꾸었다. 아직은 초보 수준이지만 직접 재배한 오이, 호박, 가지, 무, 고추, 상추 등을 수확해서 밥상에 올려놓을 때의 기쁨은 또 다른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즐거움도 컸다.

가끔은 등산이나 산책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있다.



퇴직한 지 이제 두 달이다. 아직은 익숙지 않은 자유라는 뜻을 규칙적인 생활로 극복해야만 했다. 평생을 45분의 수업 시간과 10분의 휴식 시간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온 터라 아직도 차임벨이나 종소리가 들리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이것이 교사의 몸이 익힌 숙명이요 생활습관이다. 이러한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초초하거나 두렵지는 않다. 인생 2막, 신중년의 멋진 삶이 딱하니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나만의 화려한 일곱 색깔 턴테이블은 오늘도 바쁘게 잘 돌아간다. 월요일에는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탁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화요일에는 미사와 레지오 활동에 참여하여 신앙생활에 열중하고 있다. 수요일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하고, '내 인생의 책 100권'을 달성하고자 도서관을 방문하여 꾸준히 독서 활동을 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건강도 찾고 취미 생활도 누릴 겸 스포츠 댄스를 배우고 있다. 2025년 11월에 계획된 크루즈 여행 때 선상 댄스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맹연습 중이다. 아직은 어설프지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금요일부터는 가족의 날이다. 이날을 위해 모든 약속은 금요일 전으로 잡아놓는다. 온 가족이 함께 시골집에 가서 텃밭도 가꾸고 자연의 향기도 맡으면서 마음껏 전원생활을 누리다 일요일 오전에 맑고 밝은 얼굴로 돌아온다.

꿈은 밤에 꾸면 꿈이지만 노력하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보완하면서 '건강 백세 시대'에 맞춰 몸과 마음을 살찌우고 가꾸어가는 '영혼의 매력자'가 되고 싶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기타나 장구도 배우고 싶다. 한국어강사 자격증도 취득해서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멋지게 설명해 주고 싶다. 또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봉사활동도 체험해 보고 싶다. 자율성은 있고 구속력은 없는 현실 환경 때문에 자칫 계획을 추진하는 동력을 잃을까 내심 걱정되기도 한다. 62년을 살아온 열정이 식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애써 세운 계획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기대하자. 퇴직을 하고 나서 지난 두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 1년 후에 변모된 나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 또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생 2막, 일곱 색깔 무지개를 위하여  
오늘도 파이팅을 외친다.



---

발행일	2025. 03.
발행처	공무원연금공단 02-560-2565
홈페이지	<a href="http://www.geps.or.kr">www.geps.or.kr</a>
기획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6층
디자인 · 인쇄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